

추억의 순간

科學技術處의 탄생

金基衡

(연구원이사장
한국과학기술)



26년전 朴正熙대통령과 과기처 현판 걸어

이 사진은 지난 1967년 4월21일 상오 10시 과학기술처 발족 기념식을 갖기 직전 朴正熙대통령과 4월13일 초대과학기술처장관에 임명된 본인이 과기처 현판을 걸고 있는 장면이다.

과기처는 조선일보사뒤에 있는 구 원자력병원을 개조한 임시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후 제1정부종합청사 18층으로 옮겨 업무를 보다가 과천의 제2정부종합청사가 완공된 후에는 과천청사로 이전, 현재에 이르고 있다.

4월21일을 「과학의 날」로 제정한 것은 과총의 건의로

우리나라 5천년역사에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담종합행정이 시작된 날(과기처 발족일)이 가장 의의있고 때도 마침 4월이어서 계절도 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하여 모든 과학기술관련행사를 이 달에 집중적으로 거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2천년대 선진공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라는 비상한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반세기를 맞이한 이번 제26회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선진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충심으로 양축하는 바이다.